

▶합격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으로

합격 대학 중 일단 선택... 지원서 업데이트

요즘 고교 시니어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합격, 불합격 혹은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대학별 통계를 살펴보면 대기자 명단에서 최종 합격자 명단으로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원하는 대학에서 오는 합격 통지를 몇 달 내내 기다렸건만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지원자들이 이같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애가 타고 있다고 전한다.

.....

최종 합격자 명단으로 선발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천 명의 대기자 중에 겨우 몇 명을 최종 선발하기도 하고 많게는 몇백명을 뽑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대기자 합격률을 살펴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포기해 버리기에는 아까운 지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본다. 합격한 대학 중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끝까지 시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스스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자.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어간 지원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고 최근의 새로운 내용들로 업데이트 해보자. 유명 대학들 중에는 입학 대기자 중에서 단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대학들도 있다.

대기자 통보를 받고 합격 통보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자녀를 입학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자 명단으로 옮겨놓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혹자는 불합격이나 다름 바 없으니 포기하라고 할 것이다. 훌륭한 스펙으로 대기자 명단에 들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합격이 아니다. 그리고 어필을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분명히 희박하다.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면 일단 합격 통지를 받은 대학 중에서 어느 학교로 정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UC 계열 대학 중 한 곳에 입학의사를 밝히기로 했다면 5월1일까지 진학하고자 하는 UC 캠퍼스에 SIR(Statement of Intent to Register)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시니어 어드바이저
(어드미션 매스터즈)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합격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만약 어필을 할 계획이라면 아래 내용을 검토해 보자.

▲자녀의 이력서와 지원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라-지원서를 제출한 후 몇 달 사이에 좀 더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라.

▲지원서를 업데이트 하라-입학 대기자로 통보 되었을 때까지 상을 받았거나 전부 A를 받았거나(학기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이 되었거나) SAT 나 ACT 테스트 성적이 올랐거나 스포츠 팀에서 승리했거나 학교 신문에 글을 발표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터득했거나 경시대회에서 우승했거나 방과 후 일을 시작했거나 등등 지원서를 낸 후의 모든 내용들을 수집하여 업데이트 하라.

▲업데이트한 내용을 입학 사정 담당자에게 보내라-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는 것도 좋다. 자녀가 사는 지역의 관할 입학담당관의 연락처가 입학 대기자 통보를 보낼 때 이메일이나 편지 속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직접 대학의 입학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라. 편지의 앞머리에는 반드시 지원자가 그 대학의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든 누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본인이 귀 대학에 가장 가고 싶은 대학 1순위라는 것을 표현하라. 그리고 그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수락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편지의 두 번째 문단에는 새로 업데이트 할 내용들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라-내가 만약 입학 사정관이라면 정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기술하라. 새로운 자격이 대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꼼꼼이 생각해 보고 쓰라. 마지막 문단에는 만약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에 대해 써라.

▲그리고 끝맺음은 '보내드리는 서류를 본인의 지원서에 추가 해주기 바라며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라.

▲입학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자격을 알려라-별할 말이 없어 이미 지원서에 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입학 사정 담당자로 하여금 일만 가중시

킬 뿐이다.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었을 때는 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반드시 자신이 보낸 지원서를 먼저 리뷰해 보고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입학대기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어떻게 판별하나?

NACAC(미국 대학입학 카운슬링협회)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카데미한 성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 대학에 정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슬픈 현실은 그 대학의 학비를 감당할 만한 재정이 되는지도 살핀다. 대학 측에서는 전체 합격자를 살펴 다양한 그룹을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나 스펙, 혹은 관심분야에서 좀 더 독특한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여러 개의 추천서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에세이를 여러 개 다시 써서 보내 입학사정관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어필이 받아들인 경우

지난해 이맘때 한 학부모가 급하게 미팅을 요구해 왔다.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1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SAT도 2,360점에 학교에 있는 내로라하는 클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게다가 언니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고 현재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서 동생을 도와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는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듀크와 다트머스에서 대기자 명단에 든 것을 제외한 모든 아이비에서 불합격이 되어 실망을 안고 찾아 오셨다.

자녀의 지원서를 리뷰해 보니 여기 저기 허점이 많이 보였다.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못한 것이다. 다행히 12학년 2학기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과 몇 개의 컴피션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어필을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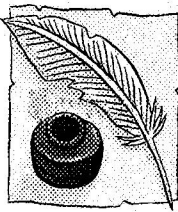
다행히 두 군데 모두 합격하여 환해진 두 소녀의 얼굴을 보니 감개무량하였다.

무조건 어필만 한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어필할 때 스스로 쓸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의 열정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능동적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내야 하고 이것을 대학 측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대학들이 원하는 지원자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이기도 하다.

자신이 대학에서 원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세상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더욱 더 성숙해지고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녀로 거듭난다면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부모와 자녀가 될 것이다.



제35회 미주 한국일보 문예작품 공모전

21세기를 선도해 가는 한국일보 미주본사는 문학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문예작품 공모전을 미전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의 제35회 문예공모전은 미주문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등용문으로 그동안 역량있는 신인들을 다수 배출, 이민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가 창간기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예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문예잔치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갈것 입니다. 미주 최고 권위의 신인작가 등용문에 작가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미주 한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응모부문 및 상금

부문		단 편 소 설	생 활 수 기	시
내 용				
제 한 분 량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3편 이내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상 금	당선작	1편 \$2,000	1편 \$1,000	1편 \$1,000
	가 작	2편 각 \$1,000	1편 \$500	2편 각 \$500
	장려상		1편 \$300	2편 각 \$200

2. 마감일자: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마감일 소인 유효

3. 보내실 곳: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4. 당선작 발표: 2014년 6월 7일 (토요일)

5. 시 상: 6월말~7월초 (추후개별통보)

6. 문 의: (323)692-2000, 2068

응모요령

- * 모든 응모작품은 어떤 지면(인터넷매체포함)에도 발표한 적이 없는 순수한 창작 이야기함. (표절했거나, 동일한 작품이 다른 매체에 중복된 투고 사실이 밝혀지면 발표 후라도 당선을 취소합니다)
- * 응모작품 결봉에는 "문예공모 담당" 이라 쓰고 작품 맨 첫 장에 별도로 응모분야 및 작품 제목을 명기하고, 인적사항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이름이 필명인 경우 본명을 따로 써주십시오.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인터넷, 팩스로는 응모작품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